

# 광주, 0명이 순식간에 11명...방판·식사모임 화 키웠다

### 초등학생부터 90대 할머니까지 확진...추가 감염자 불가피

### 마스크 벗고 '비말' 튀는 식사...지그재그 방향 감염 예방

광주광역시 방판판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악몽에 또다시 직면했다. 송파구 60번 확진자(50대 여성)로 시작해 광주와 전남에서 총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유행 확산을 잠재려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는 방문판매, 일가족 식사 등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빼어난 대목이다. 가족 간 만남에서 방역수칙이 허술해진 탓이다. 이로 인해 10대 미만 초등학생 남매부터 90대 할머니까지 무더기로

감염돼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에선 18일 10명(광주 177~186번), 19일 1명(광주 187번) 등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전남 35번)에서도 19일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이들 12명 중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187번과 전남 35번 확진자는 하루 늦은 20일 0시 기준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 60번 확진자 친인척과 접촉해 확진된 사람은 광주 186번과 187번, 전남 35번이다.

광주는 지난 18일 0시 기준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다. 21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송파구 60번 확진자에 의해 18~19일 이틀에 걸쳐 총 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일일 확진자 수는 6월 27일 4명,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에서 7월 1일 2명, 2일 6명, 3일 8명, 4일 16명, 5일 7명, 6일 6명, 7일 8명, 8일 15명, 9일 3명, 10일 9명, 11일 5명, 12일 7명, 13일 1명, 14일 1명, 15일 1명, 16일 5명, 17일 0명, 18일 11명을 기록했다.

송파구 60번 확진자는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인 부천시 179번으로부터 감염됐다. 감염경로는 '부천시 179번→송파구 60번→광주 일가족' 순이다. 송파구 60번 확진자는 가족회의를 위해 지난 10~12일 광주를 방문했다.

이후 친인척 15명과 10~11일 세 차례 함께 식사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퍼졌고, 10세 미만 초등학생 남매부터 90대 여성까지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송파 60번 집단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겠다"며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파구 60번 확진자에 의한 추가 감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선이 광범위한 방문판매 확진자 특성상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송파 60번 확진자 접촉자들이 지역 학원과 공부방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확진자 중 일부는 직업전문학원과 건설 현장 등을 방문했고, 일부 확진자는 전남 지역을 다녀왔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 확진자 수는 17일 낮 12시 기준 147명을 기록했다.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일가족 감염자 등을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 수는 16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19일 0시 기준 광주 누적 확진자 수는 176명이다.

서울 등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

염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가장 많다.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식사는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밥을 먹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비말(침방울)이 상대방에게 튀어 수 있다. 따라서 의심증상이 있으면 혼자 식사를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식사를 하는 게 감염 위험을 줄인다.

방역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족행사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보면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마주 보지 않고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한다. 부득이하게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해야 한다.

신봉우 기자



18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이동선별진료소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이 학교에 다니는 저학년·고학년 남매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 ‘남매 확진’ 광주 계수초 전원 음성

### 원격수업·1주일 자가격리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광주 서구 계수초등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전날(18일) 계수초 학

생과 교직원 등 3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원격수업과 함께 1주일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전남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와 가족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초등생 남매의 학교를 즉시 방역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당국 역시 계수초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후 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유유나 기자

## 광주시, 거짓 진술 ‘송파 60번’ 고발

### 구상권 청구도 검토

광주시가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

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광주시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가 또다시 지역감염 확산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하루 사이 확진자가 11

명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분별없는 광주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그리고 확진 판정 이후 광주방문 사실 은폐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이슬 기자

## 보성 확진자, 기차·시외버스·지하철 이용 광주 출퇴근

### 순천의료원 격리병동으로 이송 후 자세한 역학조사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SRT 열차. 이날 광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송파 60번 확진자와 10~12일 접촉한 친인척 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송파 60번은 12일 오전 SRT를 이용해 서울로 돌아왔다.

전남 35번 확진자로 분류된 보성 거주 30대 여성이 13일부터 17

일까지 보성에서 직장이 있는 광주로 출퇴근하며 기차와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여성은 전남 35번 확진자로 광주 서구 ‘더블유에셋’에 13일부터 17일까지 출근해 근무하던 중 광주 177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광주 177번 확진자는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의 친인척으로 전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35번 확진자는 16일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였고 18일 오후 3시 검체를 채취해 19일 오전 1시쯤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의 주요 이동 경로는 부친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13일부터 17일까지 보성역에서 매일 오전 6시50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해 오전 8시10분쯤 광주송정역에 도착했다.

이후 지하철로 갈아타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9시쯤 하차해 도보로 4분 거리의 직장에 9시5분쯤 출근했다. 퇴근은 반대로 직장을 나와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소태역으로 간 후 근처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후 4시52분 출발하는 보성행 시외버스를 타고 오후 5시40분쯤 보성역에 도착해 부친의 차량으로 귀가했다.

35번 확진자의 가족은 부모와 할머니 등 3명으로 모두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승호 기자

## ‘송파60번’ 광주 친인척, 병원 갔지만 코로나 검사 없었다

### “타지역 방문이나 확진자와 동선 겹칠때만 조사”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친인척 중 일부가 ‘코로나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지만 뒤늦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 코로나19 검체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송파

60번’과 접촉한 친인척 9명이 전남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광주 177~185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 중에는 10대와 10대 미만 초등학생 남매는 물론 90대 할머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183번 확진자, 177번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186번과 187번 확

진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송파 60번’과 접촉한 광주지역 11명의 확진자 중 6명이 증상이 있었고 5명이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의 유증상자 중 지난 14~15일 증상이 있었던 확진자는 5명으로 일부는 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봉우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